

학문은 본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단적 영위를 위해서 해야 한다. 그것은 험준한 산을 오를 때 거기 먼저 올라가서 길을 개척하는 일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전인미답의 산에 올라가서 정상을 밟은 사람이나중에 오르는 사람들을 위해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길이 갈라지는 곳에는 표식을 세우고, 밭 디디기 어려운 곳에는 계단을 만들고, 군데군데 대피소도 세워야 한다. 이름도 모르는 개척자가 길을 일궈 놓은 덕분에 나중에 오르는 사람들은 신체적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편하게 오를 수가 있다. 학문도 마찬가지다. 어느 분야건 선구자는 전인미답의 길에 발을 들여놓는 셈이다. 길을 닦고, 이정표를 세우고, 계단을 만들고, 위험한 곳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해매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러한 집적들이 집단적 예지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따라서 어느 영역에서나 프런트 라인(front line)에 서는 사람들의 책무는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동안 ‘길 없는 길’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을 질릴 만큼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다. 그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익숙한 길—누가 어떤 걸음으로 걸었는지, 하루에 몇 킬로미터나 돌파했는지, 짐은 얼마나 지고 걸었는지—과 상대적 우열을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길만 선호한다. 그러지 않으면 등산가로서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어필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논리가 뛰어나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발신하는 말에는 설득력이 없다. ‘자신의 이익을 불리기’ 위한 말은 시험 답안이 채점자를 향해 쓰이는 것처럼, 학회(지) 발표가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을 향해 하는 것처럼 단힌 집단에서 자원을 분배하는 권력을 가진 자에게만 향한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성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바깥으로 향하는 말’에는 품질에 대해 수치적인 평점을 제공하는 심사자가 없다. 이것은 채점자 앞에 제출된 ‘답안’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귀에 가 닿기를 바라는 진정한 ‘메시지’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평가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내 말을 수신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 책은 폐쇄적 학술 공동체에 갇힌 몇몇 심사자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급적 많은 사람들의 귀에 가 닿게 하고 싶은 욕구에 기초해서 썼다. 당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발생하는 위화감과 불협화음의 진통을 겪더라도 비고츠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좋아요 · · 홍보 ·